

노벨리스, 고베제강과 울산에 합작법인 설립 협약 체결

세계적인 제조사와의 파트너십 통해 울산공장 생산 역량 최적화 및 핵심 아시아 시장 공략 주력

애틀랜타 & 서울, 2017년 5월 10일 –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부문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노벨리스가 일본 알루미늄 제조회사인 고베제강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울산알루미늄주식회사 (Ulsan Aluminum, Ltd.)’로 명명 예정인 합작법인은 노벨리스가 보유하고 있는 울산 공장 소유지분 50%를 3억1,500만 달러에 고베제강에 매각함으로써 설립되게 된다. 금번 합작법인을 통해 노벨리스와 고베제강은 울산 공장을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되, 금속을 포함한 원자재 공급과 영업은 각 사의 책임 아래 별도로 운영하게 된다. 본 거래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7년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벨리스는 울산알루미늄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울산 공장의 압연 생산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시아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압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용과 전기전자 및 산업재를 포함한 특수제품용 시트 생산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제조회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운영 효율화와 공정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벨리스 울산 공장과 영주 공장, 중국 창저우 공장은 고객들에게 혁신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거래의 현금 수익금은 향후 노벨리스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순 부채 규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벨리스의 사장 겸 CEO인 스티브 피셔는 “아시아는 노벨리스가 고객들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며,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작법인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향후 노벨리스가 고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미래 시장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인 울산에 자리잡은 노벨리스 울산 공장에는 약 6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다양한 시장에 알루미늄 압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울산 공장은 최근 쓰리 스탠드 열간 압연 설비 (Three-stand Hot Finishing Mill)와 연속 균열로 (Pusher Furnace) 및 소둔로 (Annealing Furnace)를 신설하는 등 주요 증설을 완료했다.

##

노벨리스 소개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압연 제품의 세계 선두 주자이며,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재활용업체다. 노벨리스는 세계 10개국에서 약 12,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6년 회계 연도 매출액 10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노벨리스는 북미, 유럽, 아시아 및 남미에서 수송, 패키징, 건설, 산업 및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에 프리미엄 알루미늄 시트와 호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노벨리스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그룹인 아디타야 비를라 그룹(Aditya Birla Group)의 금속 부문 주력 기업 힌달코 인더스트리즈(Hindalco Industries Limited)의 자회사이다. 노벨리스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novelis.com)와 페이스북(facebook.com/NovelisInc), 트위터(www.twitter.com/Novel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베제강 소개

고베제강은 자재, 기계장비 및 전력 생산을 세 가지 핵심 사업영역으로 하는 다각화된 대기업이다. 자재 산업에는 철강, 용접, 알루미늄 및 구리가 포함되며 기계 장비 사업은 산업용 기계장비, 건설 기계 장비 및 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다. 전력 공급 사업은 이 회사의 세번째 핵심 사업이다. 고베제강은 일본 고베와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고베제강 그룹은 고베제강과 여러 자회사 및 관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36,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향후 전망 진술서(Forward-Looking Statements)

본 언론 보도자료에서 기술되어 있는 노벨리스 관련 내용은 유가 증권법의 의미 내에서 향후 전망을 진술한 것이다. 향후 전망 진술서는 “믿는다(believe), 기대한다(expect), 예상한다(anticipate), 계획이다(plan), 평가한다(estimate), 예상한다(project), 전망한다(forecast) 등과 같은 단어나 혹은 유사한 표현”으로 표기되는 진술서를 포함한다. 본 언론 배포 자료에 담긴 본 향후 전망 진술서의 내용은 고베제강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노벨리스의 계획 및 해당 투자회사의 이득에 관한 노벨리스의 예상을 포함한다. 향후 전망 진술서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벨리스는 실제의 결과가 진술서에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표명된 것과 현저히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한다. 노벨리스는 새로운 정보, 장래의 사건 혹은 기타의 결과 여부에 따라 향후 전망 진술서를 갱신할 의도를 갖지 아니하며 또한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을 표명한다. 특히 회계연도 기준 2017년 3월 31일에 종료된 Form 10-K에 관한 연차 보고서 내의 “위험 요소” 표제 하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중요 위험 요소들은 단지 언론 배포 자료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포함된 것임을 표명한다.